



보도시점 2026. 10. 13.(화) 11:00 (국제엠바고) 배포 2026. 10. 12.(월) 15:00

국제통화기금(IMF), 10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'26년 세계 3.1%, 한국 3.3% 성장 전망

국제통화기금(International Monetary Fund)은 '26.10.13일(화) 오전 11시(태국 방콕 현지시각 9시) 10월 세계경제전망*(World Economic Outlook)을 발표했다.

* 국제통화기금은 연간 4차례(1·4·7·10월) 세계경제전망을 발표. 4월·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(主)전망이며, 1월·7월은 주요 30개국 대상(우리나라 포함)으로 한 수정전망

【세계경제】

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가 중동전쟁 장기화와 무역갈등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(AI) 투자 확산에 힘입어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세계경제의 '26년 성장률은 7월 전망 대비 +0.1%p 상향된 3.1%로, '27년 성장률은 7월과 동일한 3.4%로 전망했다. 국가별 성장경로는 중동전쟁 노출도와 AI기술 밸류체인 참여 정도에 따라 양분화될 것으로 진단했다.

선진국 그룹(한국, 미국, 영국, 일본 등 41개국)의 '26년 성장률은 7월 대비 +0.4%p 상향된 2.1%로 전망했다. 미국(2.3%, 7월 전망과 동일)은 기술투자 및 생산성 강세 속 제한적 전쟁 영향을 반영해 '25년 성장률 수준이 유지되었고, 유로존(1.1%, 7월 대비 +0.2%p)과 일본(0.7%, 7월 대비 +0.1%p)은 에너지 부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 영향으로 '25년 대비 성장률 둔화가 전망되었다.

신흥개도국 그룹(중국, 인도, 러시아, 브라질 등 155개국)의 '26년 성장률은 7월 대비 $\Delta 0.1$ p 하향된 3.7%로 전망되었다. 중국(4.5%, 7월 대비 $\Delta 0.1$ p)은 국제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평가되었다. 중동·중앙아시아($\Delta 0.3$ %, 7월 대비 $\Delta 1.0$ p)는 에너지 수출 차질 장기화로 '26년 역성장하나, '27년 정상화되며 6.3%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었다.

'26년 세계 물가상승률은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·식품가격 상승 영향으로 7월과 동일한 4.7%(선진국 3.1%, 신흥국 5.7%)로 전망되었으며, 주요국의 근원 물가는 '27년말 이후 점진적으로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었다.

금번 전망은 '27년 3월부터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통되고, 점진적인 회복을 거쳐 '27년 10월경 에너지 공급 및 물류여건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.

【한국경제】

한편,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하는 강력한 반도체 중심 대외수요에 힘입어 '26년은 7월 대비 +0.7%p 상향된 3.3%, '27년은 +0.3%p 상향된 2.8%로 전망되었다. 특히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을 대만과 함께 AI 하드웨어 핵심 교역국으로 지목하며 원자재 수출국 및 제조업 거점국에 과급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.

【리스크요인 및 제언】

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에 여전히 중동긴장·무역분절 등 하방 리스크가 우세하나, 7월보다는 완화되었다고 진단했다. 원자재 변동성과 물가압력, AI 생산성 기대 재평가 및 무역마찰 재확산 가능성 등 하방요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으며, 향후 AI 기술사이클 장기화, 에너지 공급망 재편 등 상방요인이 작용할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.

마지막으로 국제통화기금은 국가별 기민한 정책대응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. 재정여력 구축 및 중기 재정 건전화,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·선별적 지원 중심 재정정책을 강조하는 한편,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통화정책을 주문했다. 아울러, 노동이동성 제고 및 규제 효율화 등의 구조개혁과 상호 호혜적 무역 규범 복원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구했다.

【평가 및 대응방향】

'26년 한국경제 성장률(3.3%)이 지난 7월 전망 대비 +0.7%p 상승하며 세계(+0.1%) 및 선진국(+0.4%p) 평균 성장률 상향폭을 모두 상회하는 것은 한국의 강력한 AI 하드웨어·반도체 관련 수출호조의 영향으로 평가된다.

다만, 중동전쟁 장기화, 물가·금리 상승으로 민생 부담이 지속되고, 양극화와 잠재성장률 둔화 등 구조적 문제도 상존하는 만큼, 정부는 주거, 일자리, 서민금융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 등 양극화 완화 및 민생안정, 잠재성장률 반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.

※ 동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국제통화기금(IMF) 보고서를 요약·정리한 것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IMF 홈페이지(www.imf.org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국제금융국 국제통화팀	책임자	팀 장 이재홍 (044-215-4840)
		담당자	사무관 안미진 (heungmijinjin@korea.kr)
		담당자	사무관 강현정 (31khj9004@korea.kr)
		담당자	연구원 이상원 (onnet@korea.kr)



참 고

'26.10월 IMF 세계경제전망 주요국 전망

(단위 : %, %p)

	'25년	'26년			'27년		
		'26.7월 전망 (A)	'26.10월 전망 (B)	조정폭 (B-A)	'26.7월 전망 (C)	'26.10월 전망 (D)	조정폭 (D-C)
세 계	3.5	3.0	3.1	+0.1	3.4	3.4	0.0
선진국	2.0	1.7	2.1	+0.4	1.8	1.8	0.0
미국	2.3	2.3	2.3	0.0	2.2	2.3	+0.1
유로존	1.2	0.9	1.1	+0.2	1.2	1.2	0.0
독일	0.2	0.7	1.3	+0.6	1.0	1.1	+0.1
프랑스	0.9	0.6	0.4	△0.2	0.9	0.7	△0.2
이탈리아	0.5	0.5	0.8	+0.3	0.5	0.6	+0.1
스페인	2.6	2.1	2.5	+0.4	1.8	1.8	0.0
일본	1.2	0.6	0.7	+0.1	0.7	0.7	0.0
영국	1.2	1.0	1.3	+0.3	1.3	1.2	△0.1
캐나다	1.9	1.1	1.1	0.0	1.7	1.7	0.0
한국	1.1	2.6	3.3	+0.7	2.5	2.8	+0.3
호주	2.0	1.9	1.9	0.0	1.7	1.6	△0.1
기타 선진국	3.1	2.8	4.2	+1.4	2.3	2.7	+0.4
신흥개도국	4.5	3.8	3.7	△0.1	4.5	4.4	△0.1
중국	5.0	4.6	4.5	△0.1	4.1	4.0	△0.1
태국	2.4	1.9	2.1	+0.2	2.2	2.1	△0.1
인도	7.8	6.4	7.0	+0.6	6.7	7.0	+0.3
러시아	1.0	1.1	0.9	△0.2	1.1	0.9	△0.2
브라질	2.3	2.4	2.2	△0.2	2.2	1.9	△0.3
멕시코	0.5	1.2	1.5	+0.3	1.9	1.8	△0.1
사우디	4.6	1.7	△3.3	△5.0	5.5	7.9	+2.4
남아공	1.1	1.1	1.0	△0.1	1.3	1.3	0.0